

아메리칸 스타일 비스트로, 콰이민스 트리

꾸밈없는 홈메이드 스타일

최근에는 근사한 프렌치 레스토랑보다 홈메이드 요리를 내놓는 레트로한 레스토랑이 오픈한다는 소식이 더 반갑다. 일본 다이칸야마에서 갔던 미니 레스토랑을 추억하게 만드는 비스트로 '콰이민스 트리'를 소개한다. 에디터 엄지훈 사진 이충규

삼청동에 위치한 콰이민스 테이블의 인테리어를 맡았던 아티스트 김쾌민의 두 번째 야심작 '콰이민스 트리'가 오픈했다. 서래 마을에 등지를 튼 콰이민스 트리는 격식을 갖춘 와인 바나 레스토랑과 달리 첫인상이 담백하다. 빈티지한 목조로 꾸민 내부에는 한 개도 같은 것이 없는 상들리에와 못난이 나무 관절 인형, 누렇게 바랜 책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어 정겹다. 한가운데 기다랗게 놓인 테이블은 모르는 사람끼리도 웅기종기 모이는 흥대 앞 카페처럼 느껴진다. 이곳을 디자인한 김쾌민은 '새로 오픈했는데도 이상하게 오래전부터 있던 곳 같더라'는 말을 듣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곳을 꾸몄다고 했다.

스테이크를 시키면 커다랗고 신선한 등심 한 덩어리가 영국 스타일로 메시드 포테이토와 홀스 그레이트 위에 얹혀 나온다. 고기 인심은 후해야 한다는 것이 이곳의 신조. 메뉴판에 끼워진 A4 용지 한 장을 발견한다면 그날 저녁은 무조건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을 주문할 것. 오늘 들어온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만들어낸 메뉴판에 없는 오늘의 주방장 스페셜일 테니 말이다.

브런치로는 이곳만의 비밀 소스가 맛 좋은 햄버거 스테이크를 메인으로 하는 아메리칸 플래터와 소시지와 계란을 메인으로 하는 콘텐털 플래터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. 특히 달걀 오믈렛은 안에 피타 치즈를 넣어 그 맛이 아주 훌륭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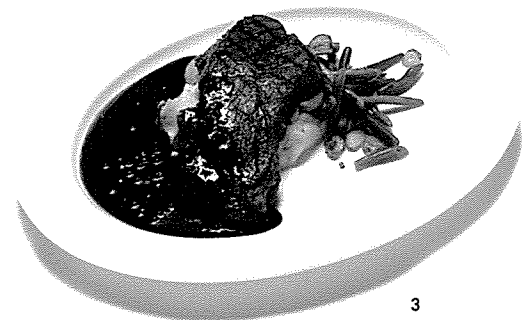
다가오는 연말과 크리스마스,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싶은 연인이나 아이들과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싶은 가족이라면 콰이민스 트리를 선택해보자. ☺

Qwymn's Tree

영업 시간 AM 11:00 ~ PM 12:00

문의 02-537-2598

위치 서래 마을 바이더웨이 골목으로 들어가 하루에 커피숍 2층



1 햇살이 따뜻하게 스며드는 실내 전경. 2 내부는 야기자 기한 요소로 가득하다. 3 영국 홈메이드 스타일의 등심 스테이크.